

HOME > 정치 > 지자체

“아~ 독립이여!”... 초야에 잠든 무명의병 845명

o 정성학 기자 | : 승인 2018.02.27 19:04

■ 제99주년 삼일절

도-광복회-고전문화연구원 이름없는 의병들 찾아내
대부분 일본군에 붙잡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민초
전북의병사 재조명하고 독립유공자 서훈도 추서키로



일제에 맞서 싸우다 차가운 감방에서 순국한 익산 출신 여학봉 의병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판결문.

대한제국기 일제에 맞서 자주독립을 부르짖다 이름도 없이 산화한 전북 출신 무명의병 800여 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2면>
대부분 장돌림이나 대장장이 등과 같은 민초였다는 게 공통점이다. 비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초야에 잠들었다는 것도 그렇다.
이런 사실은 제99주년 삼일절을 맞아 전북도, 광복회 전북지부, 전주대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이 손잡고 펴낸 '가장 치열했던 한말 전북의병사'를 통해 확인됐다.

저작권자 © 새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성학 기자 기자

인쇄